

# “바른수행 ‘불서삼매’로 복돋운다”

## 이 가을 신행단체장 4인이 읽고있는 불서

부처님은 알고 지는 잘못보다 모르고 저지르는 죄악이 더 크다고 했다. 무지와 게으름을 경계한 뜻이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불서읽기는 또다른 수행이며 신행이다. 불교의 생활화를 구현하는 신행단체장들이 권하는 '이 가을의 불서'를 함께 펼쳐보자.

공(空)한 것이라는 즉, 삼라만상의 실상을 중생들이 알 수 있도록 쉽게 자세히 설해 놓은 경전이 바로 능엄경이라는 추천이유를 밝혔다.

육조단경에는 돈오·견성의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며, '깨달음에는 본디부터 나무가 없고 맑은 거울도 역시 바탕이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준다'라는 추천이유를 붙여 <불교사 100장면>(해봉 지음, 가람기획)을 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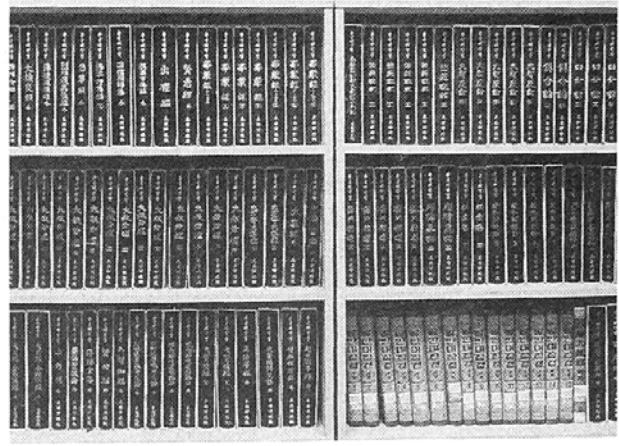
또 기복불교 정치권력에 예속된 현대 우리불교의 모습은 일제잔재를 청산치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해봉스님의 <친일불교론(민족사)의 일독

다. <신가귀감>은 휴정스님의 저술로, 선의 사상과 방법을 간추린 일종의 선학개론서이다.

월간<과학동아>를 정기구독하고 있다는 조희장은 또 불교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현대과학의 연구성과를 적극 수용, 불교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를 불식시키고 참신한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명저'라며 불교에 관심있는 젊은이들이나 갖 불교에 입문한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강조했다.

요즘은 <불교를 알면 21세기 보인다>를 읽고 있다는 성교수는 문명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적 세계관으로 불교가



◇ 앞으로의 역경은 독자들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번역이 요구된다.

**능엄경** 삼라만상 실상 쉽게 정리

**신가귀감** 선교 융합과 화합의 길

**불교를 알면...** 참신한 불교상 제시

**육조단경** 돈오·견성사상 함축

**현대사회와 불교** 문명위기와 불교 역할

**불교사 100장면** 불교대중화 당면과제

**불교를 알면...** 문명위기와 불교 역할

**불교를 알면...** 문명위기와 불교 역할

**친일불교론** 불교속 일제잔재 진단

**본지공판** 선사들의 투철한 수행

각종단 신도회의 모임인 전국신도단체협의회 감동희회장은 경전을 읽고 외우는 이는 많지만 부처님의 참뜻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며 능엄경과 육조단경을 권했다.

아니다. 본래 활짝 열려 아무 것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나 티끌이 있을손가'라는 해봉스님의 유명한 계승을 소개했다.

교수불자연합회장 한상범교수(동국대·법학)는 '부처님말씀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현실화되었는가를 살피고 당면한

도 권했다.

삼보법회 조희정회장은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우월함을 강조할 뿐 남의 미덕을 존중해주지 않는 한국불교의 풍토가 안타깝다며 <신가귀감>을 '이 가을의 불서'로 추천했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 했듯이 선교를 융합한 화합·회통의 가르침을 후학들에게 강조한 명저'라고 추천이유를 설명했

가르침을 널리 펼쳐야 한다며 불교와 과학과의 관계를 밝힌 책들의 일독도 아울러 권했다.

성태용교수(건국대 철학, 우 리는선우 운영위원장)는 '불타가 우리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은 무엇인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현대사회와 불교>(한길사)를 꼽았다. 특히 이 책 가운데 율불라 라올라스님의 '불타의 가르침'은 "불교는 구대의연하다는 오해

다.

대한불교청년회 이사변희장은 "한국불교 선행의 진면목을 시적인 문체에 담은 책"이라는 말과 함께 성철스님의 <본지공판>(장경각)을 꼽았다. 머리말에 두고 하루 몇장씩 읽고 있다는 변희장은 성철스님이 살아계실 때는 불렀는데 이 책을 보며 역시 큰 어른이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며 "선사들의 투철한 수행정신을 이어받아 재가자들도 수행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거듭 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 책방 역사인물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불타의 가르침	이기영	불교진흥원
2	티벳사자의 서	파도라삼베	정신세계사
3	등산불	석용산	문학수첩
4	지금 이 자리에서의 깨달음	대시마루	장·송
5	마음뛰는 길(수집)	강건기	불 일
6	영가천후언어	석성우	토 방
7	42장경	라즈니쉬	성 하
8	히말라야·인도에 빠진 닥터	임현달	효 형
9	절을 찾아서	고 은	책 세상
10	무엇하러 왔는지	돈 연	미 학사

구입문의: (02)737-0695

## ‘다석 류영모의...’ 일부 내용 진각종 “밀교 왜곡기술” 주장

최근 발행된 <다석 류영모의 불교사상>(박영호 지음, 문화일보사)이 일부 내용에서 불교의 한 흐름인 밀교를 왜곡되게 기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내용은 "밀교는 부처가 가장 경계한 남녀의 교합 속에 무슨 오묘한 진리가 있는 듯 가르치며 남녀의 교합을 종교의식으로 행한다. 밀교는 사

실상 성력(性力) 종교지 불교가 아니다...밀교가 신라 명랑(明郎) 등에 의해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신라 고려의 망국을 재촉하였다. 조선조가 불교를 배척하고 탄압하는데는 불교의 타락이 더 큰 원인이 되었다"(P.18)라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밀교종단인 진각종의 한 관계자는 "인도의 힌두적 성격의 타트라를 밀교로 오

해한 상식밖의 서술"이라고 비판했다.

총지종 밀교연구소 김홍배 연구원은 "성력과, 즉 좌도밀교를 밀교의 전부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며 종단에서 공개항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선시대 불교배척의 원인이 불교타락에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 한 불교학자는 "조

단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방랑은 이미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인간이 가져야 할 방랑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기도 한다.

기과한 행동과 인간적 고뇌, 생애는 기지와 파도치는 시어(詩語)들로 점철된 김삼재의 일생. 그러한 여정을 따라가는 이 소설의 행간에는 독자에게 '유별한 방랑'을 요구하는 기운이 스며있다.

(풀빛, 각권 6천5백원)

## “방랑의 미학 소설로 형상화”

### 고은씨 '김삼재' 폐내

"방랑이아말로 가장 어려운 무상성(無常性)의 구현이다."

고은씨가 방랑시인 김삼재(김병연)을 3권의 소설로 되살려 놓았다. 그리고 그 되살려 놓은 김삼재의 면모를 통해 방랑이 갖는 의미를 '가장 어려운 무상성의 구현'으로 압축하고 있다. 고은씨는 김삼재의 방랑을 "인류의 항구적인 과제로서의 방랑"이라고

단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방랑은 이미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인간이 가져야 할 방랑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기도 한다.

기과한 행동과 인간적 고뇌, 생애는 기지와 파도치는 시어(詩語)들로 점철된 김삼재의 일생. 그러한 여정을 따라가는 이 소설의 행간에는 독자에게 '유별한 방랑'을 요구하는 기운이 스며있다.

(풀빛, 각권 6천5백원)

## 방한암선사 김호성 지음

문집이나 소설을 통해 큰 스님들의 삶과 사상이 궤적을 쫓는 책들은 많았으나 대부분 자료의 집성 또는 일방적인 미화로 일관하기 일쑤여서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너무 높거나 멀리 있는 것으로 인식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방한암선사>는 이전의 책들과는 사뭇 다른 내용과



## 자료·증언토대 '선교검수 삶' 분석

체제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조계종의 초대종정을 지낸 방한암스님의 삶, '선교검수' '덕있는 수행자'로서 후학들에게 각인되었는가를 자료와 증언들의 분석과 비평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읽는 사람에게 공감과 의문의

## 윤희의 법칙 김성규 지음

를 위해 저자(영남대 의대교수)는 엔트로피 상대성이론 불확정성리 등 현대물리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물리학에서 본 환상' '양자역학 불교' 등 40여편의 글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밝히고 있다. 즉 불교속의 과학, 과학속의 불교 찾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현대물리학의

## 현대물리학 이론으로 본 불교 교리

한때 불교는 비과학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종교로 인식되었으며, 심지어는 미신과도 일치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아인슈타인이 깨달은 윤희의 법칙>의 일관된 주제는 '불교는 과학'이라는 것. 이

## 송산 스님 ⑨

미국 포교가 흥법원을 중심으로 한창 이어지고 있었다. 제자들은 법사로도 풍수받고 입승·원주등의 소임을 맡기도 해 신원마다 운영이 잘 되는 가운데 선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었다.

그렇즈음 행원스님의 발길이 풀란드로 이어지고 있었으니 동구권 포교의 시작이 된 것이었다. 1978년 미국에서 제자가 된 안토니오교수(플라우대 심리학)의 안내로 처음 풀란드를 둘러보게 되었다. 풀란드는 공산국가였으므로 공창문을 나가는 일부터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 모든 이들의 안락을 위하여

에 오랫동안 불교 자체가 인정받지 못한 수난도 감내해야 했다. 불교가 인정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신자도 극히 적고 전법할 성격자도 없었다는 데 있었다. 그리고 주로 불교를 가까이하는 사람들이 젊은 청년층이거나 여행을 많이하는 예술분야의 인사들이라 반국가적 행동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일종의 정치적 불신도 하

다. 그러나 한 물건이 있어서 그 높음과 낮음과 깨끗하여 생사에 따르지 아니하니 그 맑고 깨끗한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

제이롭의 통역으로 법문을 듣는 폴란드의 젊은이들과 교수, 예술가들은 목에 침을 꿀꺽 삼키며 다음에 이어질 스님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禪)이란 나 자신을 발견하여 대우주의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아 민중생의 마음속에 대광명을 밝혀 주어 참다운 인생, 영원한 생명, 즉 '나' 속에서 생사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여 고해의 중생들을 대자대비 마음으로 건져 주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확신시키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생사마저 초



◇ 85년 프랑스 파리 달마사 개원법회를 주관하는 행원스님.

# 폴란드에 선원 개원...유럽포교 교두보

## 英·스페인·브라질·佛 등에 '참나 찾는 큰 기쁨' 퍼져나가

아니었다. 안토니오교수를 통해 알게 된 그곳의 교수, 미술가, 음악가 등이 스님을 맞이했다. 말하자면 폴란드의 전법은 그들 엘리트들의 불교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폴란드는 나라가 종교활동은 자유이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이고 보면 불교를 전하는 일도 민반한 것은 아니었다. 때문

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그래도 송산스님을 만난 젊은이들과 교수, 예술인들은 불교의 선수행과 그 의미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 일사화해 흥법원을 개설하게 됐다. 일사와 흥법원은 안토니오교수와 제이롭등이 열심히 이끌었다. 이듬해부터 미국의 신도들과 행원스님이 매년 방문해 용기를 북돋워 주었으므로 폴란

비롯해 심오사, 오도암이 각각 신설됐다. 이처럼 각지에 선원이 생기면서 순례법회도 자주 갖게 되었다.

"생(生)은 어느 곳으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생은 한낱 허공에 이는 흰구름과 같고 사(死)란 흰구름이 허공에서 없어지는 것과 같다. 사람이 오고 가고 살고 죽는 것 모두가 저 흰구름과 같이 허무무실한진대 무엇을 삼키라 말할 수 있겠

달하는 큰 지혜의 성취가 선이란 소식을 통방의 한 스님에게서 전해들은 폴란드의 지성들. 그들은 줄곧 말이 없더니 스님이 "이제 다들 아시겠는가. 그래, 그대들에게 들린 나의 이야기는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그대들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이라 생각하는가, 좋은 것이 원래부터 좋은 것이었고 나쁜것은 원래부터 나쁜 것이었

는가. 어디 대답을 해 보시라"고 독촉하니 놀라움을 탄하는 소리만 내지르고 있었다.

그렇게 선불교의 길을 엿보기 시작한 폴란드의 불자들. 그들은 각지역 선원에서 지도를 받으며 마음은 어느 곳으로부터의 '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폴란드 포교는 달릴수록 계속 힘을 받으며 가속력을 더해 갔다.

다음의 전법지는 영국이었다. 폴란드와 같은해인 78년에 서백림 무문선원을 연 사람은 흥법사였는데 그곳을 교두보로 영국포교도 씨앗을 튀어 알토고 즐기는 자라기에

## “통역으로 법문을 듣는 폴란드 젊은이들은 목에 침을 삼키며 스님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이르렀다. 그 일과 즐기는 80년의 런던선원 개원으로 이어진 것이다. 흥법사는 독일인 내과의사로 정신과, 침술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그는 일본식 참선을 오래 배웠었다. 그러나 행원스님을 만난이후 한국선의 종지를 충실히 따르고 있었다.

## “통역으로 법문을 듣는 폴란드 젊은이들은 목에 침을 삼키며 스님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전법의 물줄기가 흘러들 길은 있었고 그 물을 기다리는 목마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은 행원스님에게 국경을 넘어서는 전법여행을 계속하게 하는 하나의 당위이자 격려이기도 했다.

임연태 기자